

#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의 병자호란 관련 연구 검토\*

- 오시부치 하지메(鴛淵一),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우라 렌이치(浦廉一)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허태구\*\*

## 〈차 례〉

- 머리말
- 오시부치 하지메(鴛淵一: 1896~1983) 연구의 특징과 한계
-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1872~1946) 연구의 특징과 한계
- 우라 렌이치(浦廉一: 1895~1957) 연구의 특징과 한계
-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식민지기 병자호란을 專論으로 다룬 일본인 연구자의 저작을 검토하고, 그 특징과 한계를 정리한 연구이다.

첫 번째, 오시부치 하지메(鴛淵一)의 연구는 三田渡 碑文을 주요 사료로 활용하여 사르후 전투,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관통하는 전쟁의 공통된 특징과 양상을 추출하고자 시도했다. 조·청 무력 충돌의 배후에 있는 청의 경제적 욕구를 삼전도비에 기술된 청 황제의 鴻恩과 연관시켜 논지를 전개한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세 차례의 무력 충돌 직후 조·명·청의 국력과 상황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설명은 다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평할 만하다.

두 번째,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의 연구는 러일 전쟁 당시 국제법 전공자로서 러시아군의 항복 업무를 담당한 저자의 비교사적 관심 아래 시도되었다. 근대 이후 병자호란을 단독

\* 본 연구는 2020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주제로 다룬 최초의 학술서로서 남한산성 농성 전후의 전투, 교섭, 항복 과정을 상세히 정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논문 전체를 관통하는 저자만의 시각이나 깊이 있는 해석은 본고에서 거론한 다른 두 동양사 전공 연구자에 비해 부족하다.

세 번째, 우라 렌이치(浦廉一)의 연구는 17세기 동아시아 패권 변동기 조·청 간의 갈등을 일본의 입장과 시선에서 복원한 것이다. 이나바 이와키치의 선행 연구에서 간략히 언급하였던 관련 내용, 특히 조선-대마도-에도막부 사이의 교섭과 상호 인식, 그리고 청의 조치와 대응, 이와 관련된 대일본 인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입장과 지위를 과대평가함으로써 초래된 억지스러운 설명과 해석도 간간히 보인다.

세 명의 연구 모두 조선 측 사료에 보이는 主和·斥和論의 갈등과 대립을 조선 정치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黨派性論이나 事大主義論과 결부하여 이해하였다. 아울러 조선 내 척화론의 자발적 동력과 당위적 성격, 그 역사적 특징을 포착하지 못한 채 人災論的 史評을 付記하는데 그쳤다.

[주제어] 식민지기, 병자호란, 오시부치 하지메(鴛淵一),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우라 렌이치(浦廉一), 黨派性論, 事大主義論

## 1. 머리말

17세기 전반 두 차례에 걸친 후금·청의 침공은 짧은 전쟁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역사에 쉽게 망각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리고 종전 이후 조선의 정치사상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병자호란의 참패와 뒤를 이은 청의 入關은 1392년 왕조 개창 이래 전통적 華夷論과 事大觀에 기반하여 명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던 조선의 君臣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전근대 왕조 국가에서 國 그 자체를 상징하였던 국왕이 오랑캐라고 멸시하였던 만주족 황제 홍타이지에게 謝罪와 臣服을 표하는 三拜九叩頭의 降禮를 해야만 했던 미증유의 사건은 小中華를 자처하며 事大의 禮를 목숨보다 중시하였던 조선 지식인들에게 치욕적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그 결과, 19세기까지도 조선 사대부들 가운데 일부는 北伐을 꿈꾸거나<sup>1)</sup> 이를 명분으로 역모를 꾀하기도 하였다.<sup>2)</sup>

1) 金平默, 『重菴集』 권1, 書 「答柳誠之益明(丁丑十二月)」.

2) 『순조실록』 권2, 순조 1년 3월 癸卯(27일) “乘模曰 建淳言於周哥曰 吾將造巨艦 繕甲兵入大海中可都可郊之地 直搗彼國 以雪先恥云云 而先恥 卽謂丙子事也”.

정묘·병자호란, 특히 척화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평가는 식민지기 근대역사학의 도입과 함께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 1854~1922)와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1876~1940)를 필두로 한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 선구적으로 제기되었다.<sup>3)</sup> 그들은 주로 黨派性論과 事大主義論에 입각하여 조선 사대부들의 비현실적 名分論과 敵前 分열, 국방 태세 미비, 인조의 우수부단 등을 호란 패배의 주된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일본제국주의의 대륙 진출 전후로 수행된 淸朝史와 滿鮮史의 시각에서 광해군의 중립적 외교 노선과 최명길의 主和論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인조대의 ‘崇明排金’ 풍조 또는 斥和論을 安民과 保國이란 현재적 기준으로 비판하였다.

그 결과 胡亂은 조선이 무모하게 자초한 전란으로 평가될 뿐, 전쟁의 원인 및 성격에 대한 당대적 맥락의 이해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sup>4)</sup> 전쟁을 총체적 인간 경험의 집합으로 보는 최근 군사사의 관점에서 보자면,<sup>5)</sup>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의 시각은 식민주의사관의 투영이라는 점은 論外로 하더라도 외교와 전쟁을 당대의 정치·사회·사상·문화적 배경과 분리하여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즉, ‘당대 조선인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후금·청과의 화친을 거부하였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매우 피상적이고 결과론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병자호란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해방 이후 한국사학계에서도 조선시대사의 자율성 입증과 반성적 성찰이라는 정반대의 목적을 가진 채 존속되었으며, 대중의 이해에도 부정적 영향을 적지 않게 끼쳤다.<sup>6)</sup> 따라서 해방 이후 학계의 통설과 일반의 통념에

3) 허태구,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의 丁卯·丙子胡亂 관련 주요 연구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81, 조선시대사학회, 2017a 참조.

4) 우경섭, 「자초한 전쟁이 아닌, 피할 수 없었던 전쟁-병자호란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에 대한 새로운 해석 [서평] 허태구(2019),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 소명출판, 387쪽.」, 『인문논총』 76-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402~403쪽 참조.

5) 허태구, 『병자호란과 예(禮), 그리고 중화(中華)』, 소명출판, 2019, 11~20쪽 참조.

6) 오수창, 「청(淸)과의 외교 실상과 병자호란」, 『한국사시민강좌』 36, 일조각, 2005, 100~112쪽; 「오해 속 병자호란, 시대적 한계 앞의 인조」, 『내일을 여는 역사』 26, 서해문집, 2006, 39~45쪽; 허태구, 「丁卯·丙子胡亂 전후 主和·斥和論 관련 연구의 성과와 전망」, 『사학연구』 128, 한국사학회, 2017b, 184~187쪽; 이명제, 「소현세자 서사의 탄생과 역사 속의 소현세자」, 『역사와 현실』 125, 한국역사연구회, 2022, 193~197쪽 참조.

상당한 영향을 미친 병자호란·광해군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의 근대적 기원이 되는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과 시각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들의 滿鮮史 연구가 갖는 문제점과 한국사 왜곡, 이나바의 滿鮮史觀 및 광해군 인식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축적되었다.<sup>7)</sup> 광해군에 대한 그의 긍정적 평가가 정복왕조인 淸朝를 합리화함으로써 일본의 만주·중원 진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임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sup>8)</sup> 이처럼 식민지기 만선사 연구를 고찰할 때 그 정치적 동기와 역사적 배경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최우선적 작업이다. 그러나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이 시기에 일본인 연구자가 수행한 병자호란 관련 연구의 내용과 시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한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병자호란이란 주제가 조선사 자체의 맥락에서 접근되었다기보다, 명·청 교체나 淸朝興起史의 부속 주제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연구 자체가 희소하다는 것도 그 원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까지도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가 수행한 정묘·병자호란 관련 연구를 專論으로 검토한 학술 논문은 이나바의 저술을 분석한 한 편에 불과한 실정이다.<sup>9)</sup>

필자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나바 외에 식민지기에 정묘·병자호란과 관련하여 검토해 볼 만한 단독 논저를 생산한 일본인 연구자는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 1872~1946), 오시부치 하지메(鴛淵一 : 1896~1983), 우라 렌이치(浦廉一 : 1895~1957),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 : 1902~1984), 다가와 고조(田川孝三 : 1909~1988) 등에 불과하다. 필자는 본문에서는 오시부치, 시노다, 우라가 식민지기에 집필한 병자호란 관련 연구를 차례대로 검토할 예

7) 瀧澤規起,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와 '滿鮮史」, 『한일관계사연구』 19, 한일관계사학회, 2003; 寺內威太郎, 「『滿鮮史』 研究と稻葉岩吉」, 『植民地主義と歴史學 - そのまなざしが残したもの』, 刀水書房, 2004; 櫻澤亞伊, 「이나바 이와키치의 '만선불가분론」,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인식』(조인성 외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2009; 정상우, 『만선사, 그 형성과 지속』,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등.

8) 한평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309~314쪽; 『광해군』, 역사비평사, 2000, 26~31쪽.

9) 허태구, 앞의 논문, 2017a.

정이다. 이 순서는 검토 대상이 될 저작의 발표 순서에 의거한 것이다. 참고로 나카무라의 연구는 자료 검토의 성격을 지닌 소략한 논문이라 제외했고,<sup>10)</sup> 반대로 다가와와의 연구는 단독 논문으로 다루어야 할 정도의 분량과 사학사적 함의를 지닌 것이라 후일의 과제로 남겨놓았다.<sup>11)</sup> 이들 외에 세노 우마쿠마(瀨野馬熊 : 1874~1935)의 저술도 검토의 여지가 있지만 通史類에 포함된 짧은 글이라 일단 언급만 해 둔다.<sup>12)</sup>

본 논문의 시도는 근대 역사학의 도입 이래, 병자호란 관련 연구의 초기 연구사를 본격적으로 복원·검토한다는 학술사적 의미가 있다. 이들의 연구를 앞에서 언급한 이나바의 저작을 집중 검토한 연구성과에 기대어 고찰해 본다면,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가 집필한 병자호란 관련 연구의 특징과 한계를 더욱 입체적으로 밝힐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

## 2. 오시부치 하지메(鴛淵一 : 1896~1983) 연구의 특징과 한계

오시부치 하지메는 1896년 나가사키현(長崎縣)에서 태어났다. 1920년 교토제국대학 사학과 동양사전공을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했다.<sup>13)</sup> 1923년 오사카외국어대학교수를 거쳐 1932년에는 히로시마문리과대학(現 히로시마 대학)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이후 히로시마를 거점으로 본격적 학문 활동을 전개했고, 1947년 교토대학에서 『清初八旗制度考』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51년에는 오사카시립대학 교수에 취임하였다. 1983년 사망했다. 戰前 일본 동양사학계의 泰斗라 할 수 있는 나이토 코난(內藤湖南)의 사위였으며, 滿蒙史 및 滿蒙 사료 연구의 권위자였다. 이마니시 순주(今西春秋)<sup>14)</sup>와 미

10) 中村榮孝, 「滿鮮關係の新史料 - 清太宗朝鮮征伐に關する古文書」, 『靑丘學叢』 1, 靑丘學會, 1930.  
 11) 田川孝三, 『毛文龍と朝鮮との關係について』, 靑丘說叢卷三, 靑丘學會, 1932; 『藩館考』, 『小田先生頌壽記念朝鮮論集』, 1934; 『瀋獄問題について』(上), 『靑丘學叢』 17, 靑丘學會, 1934 등.  
 12) 瀨野馬熊, 제11장 「滿洲軍의 入寇」, 『朝鮮史大系-近世史』, 靑丘學會, 1927, 183~201쪽.  
 13) 이하 서술한 오시부치의 약력은 주로 塚瀨進, 『マンチュリア史研究-滿洲六〇〇年の社會變容』, 吉川弘文館, 2014, 26~27쪽 및 62쪽 참조.  
 14)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아들이자 나이토 코난의 제자로 교토제국대학을 졸업한 후 만몽사 및 만몽

타무라 타이스케(三田村泰助)<sup>15)</sup>의 만주어 교사가 바로 그였다. 1938년 이나바의 회갑을 기념하는 논총에 이마니시 순주,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후지즈카 치카시(藤塚鄰), 미카미 츠기오(三上次男), 와다 세이(和田清) 등과 함께 참여하였는데 그는 이때 「清初擺牙喇考」란 논문을 발표하였다.<sup>16)</sup> 3장에서 다룰 시노다 지사쿠가 이 논총의 집필진에 포함된 것도 눈에 띈다. 이상에서 일본 동양사학계에서 차지하는 오시부치의 학문적 위상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나이트 코난을 매개로 한 이나바와의 親交도 감지되어 흥미롭다. 이나바는 자신에게 학문적 영향을 준 중요한 인물중 하나로 오시부치의 장인을 손꼽은 바 있다. 이나바가 '만선역사지리조사부'와 조선총독부의 조선사편찬 사업에 참여한 것도 나이트 코난의 추천이 계기가 되었다<sup>17)</sup>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오시부치는 병자호란과 관련된 이나바의 독보적 저술(후술)을 읽은 뒤 자신의 글을 집필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요 저작으로는 『蒙和辞典』(韓穆精阿·鴛淵一 共著, 甲文堂, 1928), 『奉天と遼陽』(富山房, 1940), 『滿洲の今昔』(矢野仁一·園田一亀·鴛淵一 共著, 目黒書店, 1941), 『滿洲碑記考』(目黒書店, 1943), 『京大東洋史 第3-独裁政治の時代』(創元社, 1952) 등이 있다. 그 외 원·명·청대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조·청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는 여섯 편의 논문이 남아 있다. 하나는 『瀋陽狀啓』의 사료적 가치를 검토한 글이고, 다른 하나는 청이 조선에 요구한 竹漚이라는 약재에 대해 고찰한 글인데, 모두 戰後에 公刊되었다.<sup>18)</sup>

본 논문의 검토 대상은 오시부치가 1928년 『史林』에 4차례에 걸쳐 게재한

사료 연구자로 활동하였다.

15) 명칭사 연구자. 나이트 코난의 제자로 교토제국대학을 졸업하였다. 이마니시 순주와 함께 『明實錄』 발췌 작업에 참여하였다.

16) 稻葉博士還曆記念會 編, 『滿鮮史論叢-稻葉博士還曆記念』, 稻葉博士還曆記念會, 1938.

17) 稻葉岩吉, 「豫が滿鮮史研究過程」, 『滿鮮史論叢-稻葉博士還曆記念』, 稻葉博士還曆記念會, 3-22쪽, 1938.

18) 鴛淵一, 「『瀋陽狀啓』の史料的價值の一斑 - 特に清太宗と睿親王の身上に關して」, 『神田博士還曆記念書誌學論集』, 神田博士還曆記念會, 1957; 「清鮮關係の一齣 - 竹漚考」, 『東方學』 27, 東方學會, 1964.

「清初に於ける清鮮關係と三田渡の碑文」이란 글로 총 분량은 67쪽에 달한다.<sup>19)</sup> 이나바가 1914년 공간한 『清朝全史』 상권에 실린 글과 비교해보면,<sup>20)</sup> 분량도 비슷하거나 나름의 수준을 갖춘 글이라 평할 만하다. 양자의 글 모두 병자호란을 바라보는 식민지기 일본 동양사학의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청조 발흥기의 중요한 사건이자 계기의 하나로 이 전쟁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만주어와 몽골어에 조예가 깊었던 오시부치는 초기 조청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滿·蒙·漢文으로 陰刻된 삼전도비를 활용하게 된 것이다. 그는 이 자료 외에도 『燃藜室記述』, 『白登錄』,<sup>21)</sup> 『尊攘篇』<sup>22)</sup> 등의 조선 측 사료와 『清三朝實錄採要』,<sup>23)</sup> 『東華錄』,<sup>24)</sup> 『皇清開國方略』,<sup>25)</sup> 『明史 朝鮮傳』, 『朝鮮國來書簿』 등의 청 측 사료를 활용하였다.

「清初に於ける清鮮關係と三田渡の碑文」上(『史林』 13-1 所收)은 논문의 문제의식과 주요 論題를 소개한 다음, 삼전도비의 사료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다. 뒤를 이어 삼전도비의 體裁와 內容을 설명한 뒤 滿洲文의 로마자 傳寫와 일본어 번역을 실었다.<sup>26)</sup> 「清初に於ける清鮮關係と三田渡の碑文」中(『史林』 13-2 所收)에서는 몽골문의 로마자 전사와 일본어 번역, 漢文 원문을 차례로 실은 다음 삼전도비 日譯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덧붙였다. 이상의 작업을 통하여 滿·蒙·漢의 삼전도비문이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 비문의 구성이 ‘병자호란의 유래와 결과’(1段), ‘사르후 전투와 정묘호란 전후 양국의 역사적 관계’(2段), ‘建碑의 사유와 새로운 부자 관계의 성립’(3

19) 鴛淵一, 「清初に於ける清鮮關係と三田渡の碑文」上·中·下の1·下の2, 『史林』 13-1·2·3·4, 京都: 史學研究會, 1928.

20) 稻葉君山, 第13節 「第一次朝鮮役及び其經過」, 『清朝全史』 上卷, 早稻田大學出版部, 1914, 212~249쪽; 第20節 「第二次朝鮮役及び其經過」, 같은 책, 321~344쪽; 君山은 이나바의 號인.

21) 나만갑이 저술한 『丙子錄』의 異稱.

22) 陶菴 李緯의 저술.

23) 여기서의 3조는 태조, 태종, 세조를 가리킨다. 3조 실록 자체는 청의 사료이지만, ‘採要’라 명명된 이 자료는 일본에서 嶺山芝芻(1758-1820)와 永根氷齋(1765-1838)에 의해 편집된 판본이다 (<http://www.chinaknowledge.de/Literature/Historiography/qingshilu.html>).

24) 청 태조로부터 雍正 13년(1735)에 이르는 淸年체 사서. 청의 蔣良騏가 20권으로 편찬.

25) 1644년 입관 이전 청조의 역사를 淸年체로 기록한 사서. 건륭제의 勅命에 의해, 乾隆 39년(1774) 편찬에 착수하여 乾隆 51년(1786)에 완성되었다.

26) 그의 만주문 로마자 傳寫에 많은 오류가 있었음이 지적된 바 있다. 성백인, 「三田渡碑 滿洲文」, 『동아문화』 9,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70, 117~118쪽.

段), '銘文'(4段)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清初に於ける清鮮關係と三田渡の碑文」下の1(『史林』13-3 所收)에서는 사르후 전투와 정묘호란을 중심으로 조·청 관계를 정리하였고, 「清初に於ける清鮮關係と三田渡の碑文」下の2(『史林』13-4 所收)은 병자호란의 경과를 서술하며 그 역사적 의미 또한 부여하였다. 이처럼 오시부치는 조·청 관계의 성립기를 서술할 때 그 골격을 삼전도비문에 크게 의지하였고, 그 공백은 위에 언급된 사료를 통하여 채워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전도비의 原題가 '大清皇帝功德碑'라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 텍스트는 무력을 동원한 청의 선제 침략 전쟁이었던 병자호란의 본질을 '조선의 獲罪와 청 황제의 鴻恩'으로 변질해 놓은 성격의 글이다. 따라서 삼전도비만을 의존해 조·청 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은 거기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조선 측의 입장이나 대응이 沒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내포한 것이라 평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특징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는 조·청 관계의 基調를 설명하면서 앞서 언급한 세 개의 전쟁이 발발의 계기나 전개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가지 현상이 반복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27)</sup> 그는 우선 후금·청(이하 청으로 통일)이 조선의 영토를 차지하려는 영토적 야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청의 경제적 욕구를 지목하였다. 명과의 대립으로 인해 경제난에 시달리던 청이 조선을 통해 물자의 부족을 해결하려는 데 우선 순위를 두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전략은 물질적 이익의 획득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군사를 소비함 없이 조선의 主和論者를 이용하여 우호적 관계를 체결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청은 王者의 美德을 과시하는 한편 敵國을 一翼으로 포섭하는 일거양득을 달성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정치적 從屬 관계의 전환기에 後顧의 患을 제거하려고 조선을 공격하였다는 종래의 전형적 설명에 경제적 誘因 역시 전쟁의 배후에 잠복해 있었음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sup>28)</sup> 이나바도 유사하게 몽골 복속으로 야기된 식량난을 설

27) 篤淵一, 「清初に於ける清鮮關係と三田渡の碑文」下の1, 『史林』13-3, 1928, 29~31쪽 참조.

28) 篤淵一, 「清初に於ける清鮮關係と三田渡の碑文」上, 『史林』13-1, 1928, 14~16쪽.



명하며 청의 경제적 욕구와 開市·犯越·刷還·禮幣 등과 관련된 양국의 교섭 및 갈등을 검토한 바 있다.<sup>29)</sup> 그러나 이나바의 서술은 그 분량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오시부치와 같이 종합적 관점에 입각한 접근은 부족하다. 아울러 이나바는 오시부치와 달리 國書와 같은 관련 사료를 직접 인용하지도 않았다.<sup>30)</sup> 이처럼 호란 발발과 경제적 문제를 연관하여 보는 관점은 현재까지도 한·일 학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sup>31)</sup>

오시부치는 이어서 國難에 처한 조선의 대응이 매번 和·戰 양론으로 분열된 점을 지적하였다. 척화론은 明朝의 恩德에 대한 面目義理論으로, 주화론은 명·청 교체의 추이를 정확히 예측한 大勢論·實利論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병자호란 발발 전 조선의 적대적 대응과 청 태종의 관대한 태도를 대비하며 國交 파열의 책임이 조선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주화론자와 척화론자는 끝없는 갈등과 대립을 벌이며 시간만 소모하였고, 우유부단한 인조는 이들 사이에서 실질적이고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척화론자의 비분강개한 상소는 당당한 義理論이지만 그들의 발언을 뒷받침할만한 무력적 기반은 갖추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명길의 주장, 화친이자 항복은 약소국 조선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 오시부치의 설명이다. 즉 ‘老練明識한 최명길 같은 선비가 제창한 주화론이 득세함으로써 조선은 社稷을 보존하고 종전후 300여년에 가까운 國運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의 대외관계사는 조선 측의 입장에서 볼 때 “事大主義 一派의 受難史”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sup>32)</sup>

위와 같은 그의 설명은 삼전도비에 강조된 청 황제의 恩德論에 입각하여 종래 이나바가 살짝 언급한 경제적 동기론을 결합·변형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허점도 없지 않다. 병자호란의 경우 조선이 절대적 열세에 몰린 것은 맞

29) 稻葉君山, 앞의 책, 1914, 228~245쪽.

30) 篤淵一, 「清初に於ける清鮮關係と三田渡の碑文」下の1, 『史林』 13-3, 1928, 47~51쪽 참조.

31) 江嶋壽雄, 「天聰年間における朝鮮の歲幣について」, 『史淵』 101, 福岡:九州大學文學部, 1969; 「崇徳年間における朝鮮の歲幣について」, 『史淵』 108, 福岡:九州大學文學部, 1972; 김종원,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 朝清交渉과 東亞三國交易을 중심으로』, 혜안, 1999; 辻大和, 『朝鮮王朝の對中貿易政策と明清交替』, 汲古書院, 2018 등.

32) 篤淵一, 「清初に於ける清鮮關係と三田渡の碑文」下の2, 『史林』 13-4, 1928, 62쪽.

다. 하지만, 사르후 전투 및 정묘호란 이후의 상황을 보면 청의 역량 자체가 조선을 점령하여 영구 지배할 만큼의 월등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따라서 청의 관용 운운하는 것은 실상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병자호란이 막을 내린 1637년의 시점에서조차 명·청 양국의 엄청난 국력 차이 때문에 명의 멸망은 ‘자살’에 비유될 정도로 기대하기 어려웠다.<sup>33)</sup> 이러한 점을 보면 적어도 1619년 사르후 전투의 시점까지는 조선이 명을 배신하고 청에 붙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누르하치의 흥기 이래 청이 일관된 계획을 갖고 명을 정복하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최근 제기된 바 있다.<sup>34)</sup> 따라서 명이라는 강적을 이웃에 둔 청이 많은 자원을 투입해 조선을 영구 지배할 의지와 능력이 시종일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단기전의 승리와 원거리의 국가를 영구 지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요컨대 삼전도비에 강조된 황제의 鴻恩은 어쩔 수 없는 청의 선택지였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오시부치의 설명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실록과 같은 조선 측 자료의 通覽과 精讀이 부족한 탓에 전쟁 이전 조선의 군비 증강 시도도 포착하지 못해 대책 없는 무능만 강조하였고, 패전의 책임을 비변사 대신들에게 전가하려는 척화론자의 당대 기록에만 의지하여 조선의 대명·대청 인식도 공허한 명분론으로 이해하였다.<sup>35)</sup> 왜 척화론자들이 끝내 청과의 화친을 반대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나 분석은 전무한 채 人災論的 비판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아울러 현재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선택을 한 주화론의 지지자가 극소수에 그친 현상도 파악하지 못한 채 오시부치 자신에게 익숙한 조선시대 黨派性論의 구도만 부각하였다. 그러다 보니 남한산성 농성 과정에서 양국 간 교섭의 쟁점이 되었던 稱臣國書의 발송과 같은 禮의 문제에도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당파성론이 조선 망국의 필연성을 강

33) 르네그루쎬 펴, 김호동 譯,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사계절, 1998, 717쪽.

34) 박민수, 「홍타이지 시기(1627-1643) 만주의 對 중국 전략」, 『군사』 10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271~195쪽.

35) 17세기 조선의 군비 증강 노력과 대명·대청 인식에 대해서는 허태규, 앞의 책, 2019, 33-118쪽 참조.

조하는 일제 식민주의사학의 한 설명들이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sup>36)</sup> 주화론의 승리와 조선의 항복을 높게 평가한 오시부치의 서술은 1910년 강제 병합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당대 일본인의 의식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현재적 해석이라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역사적 관점의 접근과 당대적 맥락의 파악에는 적지 않은 한계를 드러낸 저작이다.

### 3.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 1872~1946) 연구의 특징과 한계

시노다 지사쿠는 1872년 시즈오카 현(靜岡県)에서 출생했다.<sup>37)</sup> 1899년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도쿄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가,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陸軍省의 국제법 사무 囑託에 임명되어 제3군사령부 국제법 사무 顧問으로 종군했다. 1907년 6월에는 韓國統監府 촉탁에 임명되어 통감부 임시 間島派出所 총무과장, 통감부 비서관을 역임하였다. 1910년 10월부터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평안남도예 파견되어 총무부장·내무부장·도지사를 역임하였다. 1923년 2월에는 李王職 차관에 임명된 후 1932년 3월에는 장관으로 승진하여 1940년 3월까지 근무하였다. 동년 7월부터 1944년 3월까지 京城帝國大學 총장을 역임하였다. 1946년 사망하였다.

시노다는 1909년 간도협약 이전 일본 측 입장에서 간도문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국제법 전문가였다. 평안남도 도지사로 재직중이던 1920년 10월에는 친일 단체인 大東同志會를 배후에서 지원하여 설립하였다. 1922년에는 러일 전쟁 당시 전시국제법 등의 연구로 法學博士학위를 받았다. 1927년에는 영친왕 부부를 모시고 유럽을, 1935년에는 대만을 시찰하였다. 1925년부터 1940년까지 오랜 기간 朝鮮史編修會의 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1930년에는 이왕직 차관의 자격으로 『고종·순종실록』 편찬실의 위원장

36) 이태진, 「黨派性論 批判」, 『한국사시민강좌』 1, 일조각, 1987.

37) 이하 서술한 시노다의 경력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물자료DB, 나고야대학 법학대학원의 JINJIKOSHINROKU(who's who)DB와 장영숙, 「李王職의 『高宗·純宗實錄』 편찬사업과 그 실상」, 『사학연구』 116, 한국사학회, 2014, 117~118쪽을 주로 참조하였다.

직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실질적 편찬 업무의 책임자는 최종 감수를 맡은 경제제국대학 교수였던 오다 쇼고(小田省五)였다.<sup>38)</sup> 주요 저작에는 『日露戰役國際公法』(法政大學, 1911), 『文祿役と平壤』(平安南道教育會, 1919), 『歐洲御巡遊隨行日記』(大阪屋号書店, 1928), 『台灣を視る』(樂浪書院, 1935), 『白頭山定界碑』(樂浪書院, 1938) 등이 있다.

이처럼 시노다는 국제법의 권위자로서 간도 교섭의 실무와 행정을 담당하였고, 조선총독부의 고위 관료로서 지방 행정과 이왕직 관리 업무, 기타 역사 편찬 사업에도 발을 걸친 저명한 인물이었다.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시부치와 차이가 있지만, 국제법 분야를 전공했다는 점에서는 아카데미즘의 본격적 세례를 받지 않은 채 활약한 기쿠치 겐조(菊池謙讓)와 같은 浪人 계열의 식민사학자와는 구별된다.<sup>39)</sup> 앞에서 보았듯이 그는 1938년 이나바의 회갑기념논총에 당대의 저명한 역사학자와 함께 글을 기고한 바 있는데,<sup>40)</sup> 1934년에는 오다 쇼고의 頌壽記念論集에도 스에마쓰 야스카즈, 나가 무라 히데다카, 다가와 고조,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등과 함께 집필자로 이름을 올려 「旅順口開城規約」이란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상 그의 이력으로 볼 때 당시 조선에서 활동한 여러 역사학자와의 친분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 특히 조선사편수회 간사로 편찬업무를 주도한 이나바와도 어느 정도의 교류나 안면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시노다는 1930년 서울에서 『南漢山城の開城史 - 極東に於けるCapitulationの一例』를 비매품으로 출간하였다.<sup>41)</sup> ‘Capitulation’은 辭典에 ‘조건부 항복’으로 나오는데 국제법상에서는 교전국 군대의 일부가 그 지휘관의 권한에 있어서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적대해 온 군대의 권력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더 좁게는 降伏規約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시노다는 開城 또는

38) 장영숙, 앞의 논문, 112~113쪽.

39) 식민지기 낭인 계열의 일본인 근대사 연구자에 대해서는 김종준, 「식민사학의 ‘한국근대사’ 서술과 ‘한국병합’ 인식」, 『역사학보』 217, 역사학회, 2013, 256~263쪽 참조.

40) 이 때 그가 발표한 논문의 제목은 「總監府問島派出所の事蹟概要」이다.

41) 篠田治策, 『南漢山城の開城史 - 極東に於けるcapitulationの一例』, 京城: 非賣品, 1930(총 분량 90 쪽). 이 저서의 존재를 알려준 인하대학교 사학과 우경섭 교수에게 다시 한번 깊은 謝意를 표한다.

항복규약이 ‘Capitulation’의 譯語임을 명기했다.<sup>42)</sup> 책의 전체 목차는 다음과 같다.

[표1] 『南漢山城の開城史 - 極東に於けるCapitulationの一例』 목차

| 구분   | 節 제목                                    | 해당 쪽  |
|------|---|-------|
| 序    | (1930년 8월 25일 작성)                       |       |
| 第1節  | 緒說                                      | 1~5   |
| 第2節  | 「滿洲」의 발흥                                | 5~9   |
| 第3節  | 戰役前에 있어서 조선의 國狀<br>一) 광해군의 失政, 二) 이괄의 난 | 10~12 |
| 第4節  | 丁卯의 變                                   | 12~16 |
| 第5節  | 戰役前의 외교와 和戰論                            | 16~26 |
| 第6節  | 滿洲軍의 來攻과 인조의 籠城                         | 26~29 |
| 第7節  | 전투의 경과                                  | 29~39 |
| 第8節  | 和戰兩論과 軍使의 왕복                            | 39~44 |
| 第9節  | 항복의 청원과 그 조건의 논쟁                        | 45~62 |
| 第10節 | 主戰論者의 縛送 및 國王出城의 決定                     | 62~67 |
| 第11節 | 降伏規約                                    | 67~71 |
| 第12節 | 主戰論者의 引渡                                | 71~73 |
| 第13節 | 항복식                                     | 74~78 |
| 第14節 | 滿洲軍의 철군과 퇴각                             | 78~84 |
| 第15節 | 大清皇帝功德碑                                 | 84~90 |

이 책은 필자가 파악하는 限 근대 역사학의 도입 이래 이후 병자호란을 단독으로 다룬 첫 번째 학술서이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시노다는 러일 전쟁에 국제법 고문으로 종군하던 중 旅順 요새의 開城事務, 즉 항복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極東의 開城 사례로서 남한산성의 出城 항복 전반에 관심이 생겨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1914년 4월, 『國

42) 위의 책, 2쪽.

際法外交雜誌』에 「朝鮮南漢山城の開城」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나,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연구가 미진함을 자각하고 있다가 『仁祖實錄』 등의 자료를 보완하여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序」에서 밝혔다. 각주는 없지만 본문에서 사료를 언급한 부분이 있어 영성하게나마 그가 구사한 자료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측 사료로는 『인조실록』을 필두로 『연려실기술』, 『난중잡록』, 『병자록』, 『南漢志』, 『南漢解圍錄』(石之珩)을 활용하였다. 청 측 사료로는 『滿洲原流考』만이 확인된다. 정묘호란 江都盟約의 양국 誓文을 漢文으로 인용한 것 외에는 國書와 같은 長文의 인용 사료도 原文을 기재하지 않고 전부 일본어로 번역해 놓았다. 원문을 직접 논문에 인용·노출한 우라 렌이치의 논문과는 다르다. 강도맹약의 표기 방식은 하야시와 이나바의 典範을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sup>43)</sup>

목차를 일별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본서의 특징은 병자호란 기간에 집중하여 전쟁 발발 이후의 과정-농성 과정, 전투 경과, 사신 왕래와 講和 조건의 교섭, 출성 절차 등-에 전례 없이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다는 점이다. 거칠게 보아 하야시, 이나바, 오시부치가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변동과 한·중·일의 대응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표1]의 1~5절에 해당하는 부분에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했다면, 시노다는 병자호란에만 집중했다고 할 수 있다. 농성 과정에서 오간 국서를 인용 및 번역한 부분은 물론이고, 전투의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하여 농성 및 교섭 과정을 풍부하게 서술한 것은 1930년이라는 출간 시점을 감안하면 이 책의 성과라 할 만하다. 자신이 참전한 旅順의 203고지와 남한산성의 地勢와 방어력을 비교한 부분도 흥미롭다.<sup>44)</sup> 위의 내용과 연관되는 오시부치의 문제의식 내지 집필 동기는 다음과 같다.

나는 일찍이 日露戰役 즈음에 旅順攻圍軍의 국제법고문으로 從軍해서 훌륭한 선배를 보조하며 旅順開城의 사무를 담당할 적이 있었다. 戰時國際法の 원칙에 의해 전시중 大要塞가 授受된 것은 極東의 경우 여순의 개성이 嚆矢이다. …나는 그

43) 하야시와 이나바의 표기 방식은 허태구, 앞의 논문, 2017a, 18-19쪽 참조.

44) 篠田治策, 앞의 책, 1930, 3-4쪽.

당시부터 역사를 달리하고 문화를 달리하며 戰場에서 교전 당사자 간의 관습을 달리하는 극동의 경우 開城의 순서와 방식은 어땠을까에 대해 연구하고 싶은 희망을 품어 왔다. …남한산성의 개성은 단순히 戰場에 있어서 교전 당사자 사이의 陣中規約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양국 주권자가 체결한 講和條約이다. …특히 전시국제법 연구상 극동에 있어서 降伏規約의 한 사례로서 그것을 본다면 실로 흥미진진할 것이다.<sup>45)</sup>

그러나 남한산성 농성 및 출성과 관련된 내용의 상세한 정리라는 측면 외에 독창적 안목이나 서술의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농성 과정만 놓고 보아도 『인조실록』 등의 관련 기사를 시간순에 따라 그대로 죽 이어붙인 느낌이다. 사르후 전투에 참전한 명군의 병력을 20만, 조선군의 병력을 5천 또는 2만 명으로 서술하는 것을 보면,<sup>46)</sup> 『光海君日記』나 『柵中日錄』(李民奐)의 관련 기록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편향된 史觀이라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초기 연구로서 반드시 검토해야만 하는 이나바, 다가와의 연구 수준과는 비교 불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주의 경제적 동기를 부각한 오시부치, 명·청교체기 일본 측의 시선에서 조·청관계사를 정리한 우리의 연구 역시 시노다의 평이한 서술과 해석보다는 수준이 높다.

그는 집필 동기를 밝힌 다음 4~5쪽에서는 행복의 원인으로 ① 주전론자와 강화론자 사이에 낀 인조의 우유부단, ② 文弱의 폐단에서 비롯된 관료들의 大言壯語와 무대책, ③ 重臣들의 대립과 분열, ④ 조선의 庸將弱卒과 新興氣銳의 만주병, ⑤ 양식 및 기타 군수품의 결핍으로 인한 (농성군의) 사기 저하, ⑥ 諸道 勤王兵의 구원 실패와 산성의 고립을 지적하였다. 2장에서도 얘기했지만 黨派性論에 입각한 ①, ②, ③의 지적은 당시 주화·척화론의 대립에 내재된 복잡한 맥락을 피상적으로 단죄한 해석이다. ④, ⑤, ⑥의 분석도 피상적이고 결과론적 설명에 지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구조적 원인

45) 위의 책, 1~2쪽.

46) 위의 책, 7쪽. 원병 2만의 추정치는 하야시의 저작에도 보인다. 林泰輔, 『朝鮮通史』, 東京: 富山房, 1912, 369쪽.

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은 보이지 않는다. 광해군에 대한 설명 역시 아래 보이는 것처럼 균형을 잡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편향된 당대 사료의 논조를 의심 없이 그대로 수용하였다.

광해군은 사람됨이 어리석어 음란하고 잔인함이 끝이 없었고,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를 요직에 배치하여 일을 처리했으며, 훌륭한 무리를 쫓아내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戰後의 국가 운영은 다시 돌보지 않았다. 광해군은 大妃를 폐하거나, 宗室을 죽이거나, 긴급하지 않은 토목공사를 일으키거나, 賢臣을 멀리하여, 世事는 날로 나빠졌다. …이와 같이 內憂와 外患이 겹치고, 나라일이 나빠지는 것을 보고, 忠義로운 선비가 서로 모의하여 선조의 손자 綾陽君을 받들고 군사를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능양군(인조)을 즉위시켰다.<sup>47)</sup>

이처럼 광해군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인조반정에 대한 정당성 부여는 인목대비의 폐위교서를 축약하여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분명한데,<sup>48)</sup> 하야시의 『朝鮮通史』에 나오는 논조와 매우 유사하다.<sup>49)</sup> 시노다가 하야시의 저작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主戰論者를 대책 없이 ‘大言壯語’만 하는 자라고 비난한 평가에서도 더욱 선명해진다.<sup>50)</sup> 주전론자에 대한 비슷한 평가는 이나바와 오시부치에게서도 보이지만, 그들은 ‘大言壯語’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시노다가 최명길을 幕末의 정치가 가쓰 가이슈(勝海舟)나<sup>51)</sup> 일제의 한국병합에 적극 협력한 李完用에 비유하며 냉정하

47) 위의 책, 10~11쪽.

48) 『인조실록』 권1, 인조 1년 3월 甲辰(14일).

49) 林泰輔, 앞의 책, 1912, 371쪽 “光海の時に於ける内外の形勢は此の如くにして、その昏亂無道は日に甚だしかりしかば密に廢立を謀るものあり”.

50) 위의 책, 389쪽 “されども亦戰守の準備をなすにも非ず唯一時の感情に驅られて大言壯語口舌の空論を以て敵を待つに過ぎざるのみ”; 篠田治策, 앞의 책, 1930, 18쪽 “朝鮮の重臣は多くは少しも國力の如何を顧みず(필자: す), 徒らに大言壯語するのみである”.

51) 幕末과 메이지 정부의 고위 관료이자 정치가로 일본 해군의 창시자이자 메이지 유신의 중재자이다. 신정부군과의 최후 결전을 준비하면서도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와의 협의를 통해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의 처형을 면하고 舊幕府 신하들에 대한 처우도 협의하여 에도성을 평화적으로 양도하는 데 합의하였다.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의 스승이기도 하다.



게 時局의 추이를 통찰한 자로서 적극 평가한 점도 눈에 띈다.<sup>52)</sup>

한편 하야시가 광해군의 중립적 외교를 國家再造의 恩誼를 저버리고 명을 배신한 괴이한 행위라고 비난하였듯이,<sup>53)</sup> 시노다도 청군에 椶島 공략에 조력한 조선군의 불가항력적 조치를 國家再造의 은혜를 망각한 豹變의 태도라고 지적하며 비난하였다.<sup>54)</sup> 강화 협상 기간중에 청 사신에게 조선이 뇌물을 제공한 것도 國民性을 보여주는 것이라 폄하하였으며,<sup>55)</sup> 사슴이나 까치를 보고 吉兆라 믿었다는 傳聞도 卜筮에 의존하는 미신적 행위로 규정하였다.<sup>56)</sup> 이 시기 조선의 대응을 저열한 民族性의 문제로 치환하여 이해하려는 그의 의도가 엿보인다.<sup>57)</sup> 하야시와 유사하게 청일 전쟁 이후 삼전도비가 조선인의 손에 의해 훼손된 사실에도 주목하였다.<sup>58)</sup> 이 사건이 일본의 승전에 의해 청의 영향권에서 이탈한 조선의 지위를 상징했기 때문이다.

#### 4. 우라 렌이치(浦廉一 : 1895~1957) 연구의 특징과 한계

우라 렌이치는 1895년 나가사키현(長崎縣)에서 태어났다.<sup>59)</sup> 1928년 교토 제국대학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는 한편, 오사카부립여자전문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사학과 재학시에는 동양사를 전공했는데, 이 때 사학과에는 야노 진이치(矢野仁一), 하네다 토루(羽田亨), 나이토 코난, 이마니시 류의 강의가 개설되어 있었다. 오시부치는 대학 선배이자 히로시마

52) 篠田治策, 앞의 책, 1930, 24쪽.

53) 林泰輔, 앞의 책, 1912, 370쪽.

54) 篠田治策, 앞의 책, 1930, 84쪽.

55) 위의 책, 53쪽.

56) 위의 책, 28~29쪽.

57) 이와 유사한 시도로는 高橋亨 著, 구인모 譯,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조선총독부 編著, 김분학 譯, 『일제가 식민통치를 위해 분석한 조선인의 사상과 성격』, 북타인, 2010 등 참조.

58) 林泰輔, 앞의 책, 1912, 410쪽; 篠田治策, 앞의 책, 1930, 84쪽.

59) 이하 서술한 우라의 약력은 주로 杉本直治郎, 「浦廉一博士略傳」, 『華夷變態』 下冊, 東洋文庫, 1959 및 塚瀬進, 앞의 책, 2014, 26~27쪽을 참조하였다.

지역에서 동양사를 함께 연구하는 그룹에 속했다. 1929년에는 히로시마고등 사범의 교수로 부임하였고, 1950년에는 제도 변화 속에서 히로시마대학 문학부 교수가 되었다가 1957년 사망하였다.

1949년 히로시마 문리과대학(현 히로시마 대학)에서 『清初の台湾鄭氏に関する新研究』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청대 정치·경제·사회에 걸치는 다양한 논문을 발표했고, 오시부치와 함께 개설서 집필에 참여하였다.<sup>60)</sup> 1959년에는 에도시대 중국 관련 정보와 인식이 담긴 内閣文庫 소장 사료 『華夷變態』의 해설서를 간행하여 관련 연구에 큰礎石을 놓았다.<sup>61)</sup> 우리의 조선 관련 논문으로는 「明末清初に於ける滿·鮮·日關係の一考察」과 「台湾鄭氏特に鄭經と朝鮮との關係」 등이 있는데 모두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sup>62)</sup> 전자는 병자호란 이후 조·청·일 사이에 행해졌던 南草, 즉 담배 무역을 둘러싼 각국의 인식과 대응을 검토한 글이다.

본 논문의 검토 대상은 1934년 우라가 두 차례에 걸쳐 『史林』에 발표한 「明末清初の鮮滿關係上に於ける日本の地位」라는 연구이다.<sup>63)</sup> 제목 그대로 동아시아 정세의 격동기에 조·청은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그 관계가 일본에 미치는 파장은 무엇인지, 또 에도 막부의 대응과 조치는 어땠는지 고찰한 논문이다. 한 마디로 일본의 시선과 입장에서 새로이 정리한 17세기 조·청 관계사라고 할 만하다. 우선 이 논문의 경우 사료의 출처를 夾註에 달아 놓아 한·중·일의 사료가 폭 넓게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료

60) 浦康一, 「滿洲人の社會生活並びに經濟生活」·「滿洲人の宗教生活」, 『世界文化史大系』 19(白鳥庫吉等 監修), 新光社, 1938; 鴛淵一, 「滿洲語と文字·滿洲文學」, 『世界文化史大系』 19(白鳥庫吉等 監修), 新光社, 1938 등.

61) 林春勝·林信篤 編, 浦康一 解説, 『華夷變態』 上·中·下冊, 東洋文庫, 1959. 이 책에는 1644년부터 1717년까지의 약 2,200통에 달하는 唐船風説書가 수록되어 있다. 일본에 해마다 내향했던 중국 상인들로부터 청취한 해외정보를 唐通事가 일본어로 번역하여 나가사키 부교(長崎奉行)를 통해 에도막부에 제출하였는데, 이 자료를 에도막부의 儒官이었던 하야시 부자가 연대순으로 편집한 것이다.

62) 浦康一, 「明末清初に於ける滿·鮮·日關係の一考察」, 『羽田博士頌壽記念 東洋史論叢』, 京都: 京都大學東洋史研究會, 1950; 「台湾鄭氏 特に鄭經と朝鮮との關係」, 『廣島大學文學部紀要』 3, 廣島: 廣島大學文學部, 1953.

63) 浦康一, 「明末清初の鮮滿關係上に於ける日本の地位」(一)·(二), 『史林』 19-2·3, 京都: 京都大學東洋史研究會, 1934(총 분량 50쪽).

구사의 폭과 깊이만 한정해 놓고 보면 이나바의 『光海君時代の滿鮮關係』<sup>64)</sup>에 버금갈 정도이다. 조선 측 사료로는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事大文軌』, 『同文彙考別編』, 『燃藜室記述』, 『春坡堂日月錄』, 『大東野乘』, 『續雜錄』, 『尊周彙編』, 『西厓年譜』, 『漢陰文稿』, 『柵中日錄』, 『瀋陽日記』(宣若海), 『瀋陽狀啓』 등이 활용되었다.<sup>65)</sup> 중국 측 사료의 경우 『明實錄』, 『清實錄』, 『清內閣文庫檔案』, 『朝鮮國來書簿』, 『東夷考略』(茅瑞徵), 『建州女直考』(茅瑞徵) 등이 활용되었다. 일본 측 사료로는 『朝鮮通交大紀』, 『交隣考略』, 『江雲隨筆』, 『大猷院殿御』 등이 인용되었다. 장문의 한자 원문 사료를 본문에 그대로 인용하고 논지를 전개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漢學에 능통하였음도 감지된다.

우리의 논문 이전에도 조·청 관계에서 일본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조하는 논점은 하야시나 이나바의 前作에서 간략하게나마 언급된 바 있다. 임진왜란 당시 명의 막대한 전비 소모와 쇠락을 설명한 부분,<sup>66)</sup> 이괄의 난 당시 반란군의 선봉에 선 항왜를 언급한 부분,<sup>67)</sup> 정묘호란 이후 일본이 일본산 병기 제공과 원병을 조선에 제한한 일을 서술한 부분,<sup>68)</sup> 포로로 잡힌 姜弘立에게 후금 신료 董大海가 와서 조선과 일본의 通交를 묻자 강홍립이 (藩屏과 같은) 일본의 군사를 빌릴 수 있다고 대답한 부분<sup>69)</sup> 등이다. 특히 이나바는 『清朝全史』 상권 28節에서 「明末清初に於ける日本の位置」(430~452쪽)라는 題名으로 임진왜란 당시 누르하치 원병 제안, 명군의 국력 소모와 쇠망, 일본의 무력을 호가호위하는 조선의 발언, 정묘호란 이후 일본의 원병 제안, 정축 화약 이후 청과 일본의 통교 문제, 倭情咨文의 기원, 일본에 대한 명과 명유민 세력 - 鄭芝龍, 鄭成功, 朱舜水-의 원병 요청, 효종의 북벌 시도, 도르곤

64) 稻葉岩吉, 『光海君時代の滿鮮關係』, 京城:大阪屋號書店, 1933.

65) 물론 연대기가 아닌 私撰 사료나 文集의 경우 우리가 각각의 원본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燃藜室記述』에 인용된 書目을 협주에 달아 놓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관한 연대기의 경우도 일부는 그들이 발췌한 사료를 적극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66) 林泰輔, 앞의 책, 1912, 360쪽.

67) 林泰輔, 앞의 책, 1912, 375쪽.

68) 林泰輔, 앞의 책, 1912, 382쪽.

69) 稻葉君山, 앞의 책, 1914, 217쪽.

의 일본 표류민 송환 등에 이르기까지 명·청 교체기 조선-일본-청과 연관된 사안을 거의 빠짐없이 모아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중 호란기 조·청 관계에 대한 서술은 3.5쪽 남짓에 불과하다(430~433쪽).

이상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논문은 그 제목의 유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나바의 「明末清初に於ける日本の位置」을 모티프 삼아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하여 양자가 모두 도쿠가와 막부의 초기 대조선 외교가 저자세였다든 점을 주장한 것도 주목된다.<sup>70)</sup> 타이완 정씨 일가를 다룬 우리의 박사학위논문 주제를 상기하면 확률은 좀 더 올라간다. 한편 한·중·일의 사료를 중흥으로 활용하여 교차 검증하며 논지를 전개한 우리의 논문은 前作에 비해 압도적 분량뿐만 아니라 내용의 풍부함과 논증의 밀도면에서 이나바의 한계를 돌파했다고 평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조선과 대마도의 교섭 과정은 우리에게 의해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사료를 통해 대폭 보완되었다. 후대의 관련 연구와 비교해 보아도<sup>71)</sup>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시기 조·일 교섭의 기본적 사실 관계와 자료 인용은 우리의 단계에서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對朝鮮 교섭에 임하는 막부와 대마도의 입장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 역시 선구적으로 강조했다.<sup>72)</sup> 막부가 조선과의 국교회복을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한 반면, 대마도는 그것보다 조선과의 무역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주장은 하야시는 물론 이나바의 전작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동의하기

70) 稻葉君山, 앞의 책, 1914, 432쪽 “尚吾人の附言するを得るは、徳川初期に於ける日本の對朝鮮關係は、例令中間者に誤たれしとはいへ、屈辱に屈辱を重ねたりといふの外なし。半島の君臣が、滿洲にして日本は慶尚道の監察使をして司らしむなどと傲語せしめたる、亦た必ずしも我れに責かならずといふべからず。”; 浦廉一, 「明末清初の鮮滿關係上に於ける日本の地位」1, 『史林』 19-2, 京都: 京都大學東洋史研究會, 1934, 48쪽 “而してこの幕府の半島に對する出兵入援の意に就ては、その原因とする所複雑にして、遽にこれを断することは出来ないが、その主とする所は、徳川幕府初期の對鮮外交が國交復歸を念とするの餘り、稍稍屈辱的傾向を帯びたるに鑑み、かゝる意圖も漸く恢復せられたる國交を、更に確保せんためにあつたと、解釋すべきではあるまいか.”

71) 정성일, 「丁卯胡亂과 朝鮮의 貿易政策-1629년 日本 國王使의 上京과 관련하여」, 『사학연구』 49, 한국사학회, 1995, 69~98쪽; 한명기, 「丁卯胡亂 무렵, 朝鮮의 對日政策과 그 역사적 의미」, 『대동문화연구』 54,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06; 김태훈, 「인조대 전반기 국제정세 변화와 대일정책」, 『한일관계사연구』 55, 한일관계사학회, 2016 등.

72) 浦廉一, 「明末清初の鮮滿關係上に於ける日本の地位」(一), 『史林』 19-2, 1934, 47~48쪽.

는 어렵지만) ‘청이 왜 일본에 관심을 가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름의 해답을 내려고 시도한 것도 우라 논문만의 특징이라 할 만하다. 우리는 그 관심의 요인으로 조총 등과 같은 무기를 비롯한 일본공예품에 대한 관심, 대명정벌에 앞선 기초 공작으로서 일본의 병력과 풍속 등을 파악하려는 욕구 등을 제시했다.<sup>73)</sup>

그러나 아래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명청교체기 일본의 입장과 지위를 강조하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편향된 설명과 자의적 해석도 곳곳에 남겨 놓았다. 17세기 일본의 對淸 정보 부족을 오로지 정보 유출을 방지한 조선의 대일 정책 탓으로 돌리거나, 일본의 무력을 언급하며 후금과의 협상에 임한 조선 측의 블러핑(bluffing)성 발언을 근거로 일본이 부지불식중에 조선을 보호에 기여했다는 我田引水式 설명이 그것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청과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에서 승전한 이후 한국을 보호국화한 뒤 조선의 근대화를 명분으로 강제 병합하고 대륙 진출을 모색하던 당시의 정세가 투영된 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명과 후금 사이에 낀 조선 외교의 해결책이 일본과의 동맹에 있었다는 취지로 올린 龍洲 趙綱의 상소를 우리가 부각한 점도 의미심장하다.<sup>74)</sup> 광해군대 君臣이 일본의 이름을 빌려 명의 청병 요청을 회피하거나 후금을 견제하려 한 것도 한정된 자원에서 최대 효과를 추구하려고 한 조선 측 외교의 實利性을 입증하는 자료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조선의 산발적 블러핑이 후금과의 협상에서 조선 측의 입지를 유리하게 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명말 청초(주로 入關 이전)의 조선과 만주의 교섭에 있어 조선 측은 항상 일본에 기대어 양국의 국제관계를 자국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노력했고, 그로 인해 동아시아의 중심세력 이동에 따른 事大國 조선의 위기를 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거의 자각하지 못한 채 半島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

73) 浦廉一, 「明末清初の鮮滿關係上に於ける日本の地位」(二), 『史林』 19-3, 1934, 145쪽.

74) 위의 논문, 139~140쪽; 『인조실록』 권40, 인조 18년 5월 己丑(9일).

보면 반도 측 외교의 우수성과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 한편 일본 측의 경우 반도 측의 교묘하고 주도면밀한 은폐 정책에 따라 鮮滿關係의 추이에 관한 適確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겨우 단편적으로 어느 정도만 알 수 있는 鮮滿 양국 관계의 情勢를 활용해 (조·일) 국교회복 이후 다소 경색된 日鮮交通을 타개하기 위한 도구로 제공하는 정도에 그쳤고…<sup>75)</sup>

나아가 우리 역시 앞의 일본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당대의 역사적 맥락이나 17세기 조선이라는 시대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광해군과 인조반정에 대한 서술은 결과론적이고 편향적이었으며, 이 시기를 관통한 주화·척화의 본질과 동력에 대해서도 이해의 정도가 깊지 않아 당파성론으로만 수렴시켜 설명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우리의 서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상술해보겠다.

明은 萬曆 47년(1619)을 기해 신흥세력인 建州에 대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려 하자 먼저 조선에게 병사를 징집해 파견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英明한 광해군은 건주에 대한 適確한 인식과 과거 임진·정유재란 당시 明兵의 실력을 비추어 볼 때 그 승패가 곧 역전될 수밖에 없음을 간파하고, 게다가 국내는 아직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져 있고 또 內變의 위험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명군의 구원 요청에 완곡한 거절의 계책을 내놓은 것은 당시의 여러 기록이 입증하는 바이다. 그래서 광해군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援用할 수 있는 모든 事件을 능숙하게 파악했는데, 특히 倭情의 활용을 잊지 않았다.<sup>76)</sup>

위와 같이 광해군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임진왜란의 경험에 비추어 사르후 전투의 승패를 예측한 점, 일본의 위협적 동태를 핑계로 명의 청병 요청을 거절하려 한 광해군의 외교 수완을 높게 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출병 회피의 노력은 비변사 小壯輩 등의 宗主國에 대한 맹목적 신앙과

75) 위의 논문, 144쪽.

76) 浦廉一, 「明末清初の鮮滿關係上に於ける日本の地位」(一), 『史林』 19-2, 1934, 31~32쪽.

壬辰年 國家再造의 天恩에 보답한다는 名分에 입각한 出兵論의 高唱으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비변사 소장배와 출명론을 제기한 자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

萬曆 47년의 전쟁 이후 半島外交의 眞隨는 표면적으로는 어찌 되었든 간에 內實에 있어서는 당시 慧眼을 가진 明의 徐光啓가 지적한 바와 같이 “媾倭歎奴 즉 南結倭奴北連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情勢 아래 놓여 있었다. 聰明한 광해군은 이 뜻을 잘 헤아려 國步艱難의 時局을 수습·처리하였으나, 국내의 北人과 西人の 黨爭은 점차 심각해졌고, 더욱이 왕과 備局 사이의 對金政策에 관한 의견 차이에 기반한 不和의 간극은 마침내 事明派 西人이 기회를 잡는 바 되어 親金派 大北의 전멸과 함께 왕 역시 廢位되는 悲運에 설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고, 서인파에 옹립된 仁祖가 즉위함에 따라 半島의 對金態度는 이렇게 一變하게 되었다. 물론 崔鳴吉과 같이 半島内外의 實情에 입각하여 和議說을 주장하는 자도 있었지만, 年少輕疏의 무리에 의해 접거된 備局의 主戰論은 마침내 인조마저도 時流에 편승시켜 그 對金態度는 더욱 날카로워지나..77)

그의 설명에 따르면 사명과 서인이 인조반정을 주도하여 친금과 대북과 광해군을 몰락시켰고, 이에 의해 왕위에 오른 인조는 時流에 편승하게 되어 조선의 대후금정책은 이전과 달리 硬化되었다는 취지이다. 이후 병자호란의 발발 과정에 대한 서술에서도 사명과 서인이 보인 淸에 대한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가 양국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설명하였다.<sup>78)</sup> 즉 전쟁 발발의 책임을 청이 아니라 조선 측 척화론자에 돌린 것이다.<sup>79)</sup> 반복해 얘기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의 설명은 中華를 보편 문명으로 수용하고 추구한 당대인의 인식 속에서 朋黨을 초월해 지지받았던 17세기 척화론과 對明義理論의 맥락을 도외시하고, 反正 이전과 마찬가지로 후금의 군사적 위협을 인지하고

77) 위의 논문, 41~42쪽.

78) 浦廉一, 「明末清初の鮮滿關係上に於ける日本の地位」(二), 『史林』 19-3, 1934, 125쪽.

79) 전쟁 자초론에 대한 비판은 오수창, 앞의 논문, 2005, 103~112쪽; 구범진, 『병자호란, 흥타이지의 전쟁』, 까치, 2019, 33~72쪽; 우경섭, 앞의 논문, 2019, 402~403쪽 참조.

군비 강화를 추진하였던 인조대 외교·안보 측면의 실상을 왜곡하는 것이다.<sup>80)</sup> 아울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래된 광해군 및 최명길의 정치적 고립, 복인의 리더이자 광해군의 戚臣이었던 李爾瞻·朴承宗·柳希奮의 척화론 제기, 모문룡에 대한 적극 지원을 호소하며 광해군을 비난하는 왕비 柳氏의 한글상소, 청에 대한 유화론을 일관되게 주장했던 최명길이 인조반정에 참여한 이유 등에 대한 일관된 맥락의 설명도 불가능하다.<sup>81)</sup> 사명과 서인 對 친금과 대북의 구도 설정 역시 1년전 출간된 이나바의 저서가 ‘명의 원병 요청을 지지하는 다수의 비변사 신료들에 의해 고립된 광해군’이란 사실을 강조했다음을 상기하면 퇴보한 느낌마저 든다.<sup>82)</sup> 이나바는 이 책에서 이이첨이 원병 요청을 앞장서 지지하며 광해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는 점을 선구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 5. 맺음말

이 논문은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의 병자호란 관련 저작을 검토하여 그 특징과 한계를 정리한 연구이다. 첫 번째 분석 대상은 오시부치의 「清初に於ける清鮮關係と三田渡の碑文」이다. 청조 발흥기의 중대 계기로서 병자호란을 바라보는 식민지기 일본인 동양사 전공 연구자의 시각이 잘 드러난 글이다. 삼전도비의 日文 해석과 함께 사르후 전투·정묘호란·병자호란을 통관하는 전쟁의 공통된 특징과 양상을 추출하고자 시도했다. 이나바가 『清朝全史』에서 잠시 언급한 조·청 무력 충돌의 배후에 있는 청의 경제적 욕구를 삼전도비에 서술된 청 황제의 鴻恩과 연관시켜 논지를 전개한 점이 특징이

80) 허태구, 앞의 책, 2019 참조.

81) 한명기, 앞의 책, 1999, 265~286쪽; 계승범, 「광해군대 말엽(1621~1622) 외교노선 논쟁의 실재와 그 성격」, 『역사학보』 193, 역사학회, 2007; 허태구, 「崔鳴吉의 主和論과 對明義理」, 『한국사연구』 162, 한국사연구회, 2013, 89~96쪽; 허태구, 「광해군 대 박승종(朴承宗)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인식」, 『한국학연구』 6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261~271쪽 참조.

82) 稻葉岩吉, 앞의 책, 1933, 126~141쪽 참조.



다. 그러나 세 전쟁 직후 조·명·청의 국력과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오시부치의 설명은 다소 성급하거나 결론론적으로 보인다.

두 번째 분석 대상은 시노다의 『南漢山城の開城史 - 極東に於けるCapitulationの一例』이다. 이 저작은 러일 전쟁 당시 여순 요새에서 러시아군의 항복 업무를 담당했던 저자의 비교사적 관심에서 발로된 연구이다. 근대 이후 병자호란을 專論으로 다룬 최초의 학술서로서 남한산성 농성 전후의 전투, 교섭, 항복 과정을 상세히 정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논문을 관통하는 저자만의 시각이나 독창적이고 깊이 있는 해석은 다른 두 동양사 전공 연구자의 저작에 비해 부족하다.

세 번째 분석 대상은 우리의 「明末清初の鮮滿關係上に於ける日本の地位」이다. 하야시와 이나바의 관점을 계승하여 17세기 동아시아 패권 변동기 조·청 간의 갈등을 일본의 입장과 시선에서 복원한 글이다. 선행 연구에서 간략히 언급하였던 관련 내용, 특히 조선 - 대마도 - 에도막부 사이의 교섭과 상호 인식, 그리고 이와 연관된 청의 조치와 대응, 청의 대일본 인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입장과 지위를 과대평가하는 바람에 초래된 억지스러운 설명과 해석도 간간히 보인다.

세 연구 모두 조선 내 주화·척화론의 갈등과 대립을 조선 정치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당파성론이나 사대주의론과 결부하여 이해하는 데 그친 한계를 드러냈다. 그리하여 당대의 다른 사료에 기록된 明 또는 明軍 戰力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광해군과 인조대 내내 추진된 군비 강화 노력, 그리고 그 실패 요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시야에 넣지 못한 채 人災論的 비판만 거듭하였다. 나아가 척화론의 진정한 동력과 본질, 그리고 역사적 특징을 포착하는 데 깊이 있는 해석이나 통찰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광해군 평가를 정리해보자. 하야시의 경우 광해군의 밀지설은 인정했지만 임진왜란 당시 國家再造의 恩誼를 저버리고 명을 배신한 것이라는 부정적 코멘트를 남겼다. 나아가 內政은 혼란무도 그 자체였고, 外政 역시 애매한 태도로 관망만 해서 대명·대후금 관계를 악화시켰을 뿐이라고 설명했다.<sup>83)</sup> 인

조대의 주화·척화론에 대해서는 최명길 홀로 평화를 외쳤다는 사실을 언급한 다음, 척화론자의 경우 전쟁 준비는 도외시한 채 大言壯語만 외친 자들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sup>84)</sup> 이나바의 『清朝全史』 상권은 밀지설에 무게를 두면서도 부정설도 균형 있게 제시하였다.<sup>85)</sup> 광해군의 내정은 부정적으로 보았는데 외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광해군에 비해 인조의 외교노선이 崇明排金の이라는 설명만 明記해두었다.<sup>86)</sup> 인조대 주화·척화론에 대한 평가는 하야시와 대동소이하나 그 강도는 더욱 세다. 최명길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sup>87)</sup>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33년 『光海君時代の滿鮮關係』의 출간 즈음에는 밀지설을 적극 부정함과 동시에 광해군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sup>88)</sup> 나아가 時勢를 통찰하는 국왕의 총명함이 광해군의 폐위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극찬도 서슴지 않았다.<sup>89)</sup>

앞에서 검토한 오시부치의 논문은 척화파의 파병 찬성론을 명과의 從屬 관계라는 전제하에 재조치에 기반한 정당한 태도라 평가하면서도, 광해군의 중립적 태도를 자국의 안위를 우선 고려한 현명한 판단으로 설명하였다.

83) 林泰輔, 앞의 책, 1912, 270~271쪽.

84) 위의 책, 389쪽.

85) 필자는 前作에서 이나바가 『清朝全史』 상권에서 하야시의 견해를 따라 광해군의 밀지설을 전적으로 긍정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오류이다(허태구, 앞의 논문, 2017a, 19~20쪽). 이나바는 “此戰役に對する朝鮮の態度に就ては兩様に解釋せらる…”라 말하며 밀지설에 대한 긍정설과 부정설을 각각의 논거와 함께 제시해 놓았을 뿐,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해당 節의 제목을 ‘光海君の密旨と姜弘立の投降’으로 명명한 것으로 보아 종래의 긍정설을 잠정적으로 지지했던 입장으로 보인다(稻葉君山, 앞의 책, 1914, 215~216쪽).

이 기회를 빌어 필자의 실수를 한 가지 더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이나바가 『清朝全史』 상권에서 “최명길의 丙子奉事를 憂國의 大文字라고 높이 칭송한 반면에, 이를 반박하는 尹集의 斥和上疏는 小壯 斥和黨의 본색을 드러내는 ‘邪佞惟匿한 言’으로 간단히 규정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이 역시 잘못이다(허태구, 앞의 논문, 2017a, 23쪽). ‘邪佞惟匿한 言’은 윤집이 최명길의 상소를 가리키며 비난하는 말이었는데, 필자가 일본어로 인용된 사료의 띄어쓰기를 면밀히 살피지 못해 誤讀한 것이다. 한편 이나바는 척화론에 대해 청군의 기세를 누그러뜨리는 데 아무런 효력이 없는 ‘한 조각의 書生論’을 면치 못한다는 혹평을 남겼다(稻葉君山, 앞의 책, 1914, 337쪽).

86) 稻葉君山, 앞의 책, 1914, 215~219쪽.

87) 위의 책, 325~329쪽.

88) 허태구, 앞의 논문, 2017a, 18~20쪽 참조.

89) 이나바 이와키치 著, 서병국 編譯, 『만주사통론』, 한국학술정보, 2014, 327~328쪽(원서는 稻葉岩吉, 『滿洲國史通論』, 일본평론사, 1940).

밀지설은 그 실체를 인정하였다. 주화·척화론에 대한 평가는 1914년 이나바가 출간한 『清朝全史』 상권의 설명과 대동소이하다. 반면 시노다의 경우 다시 하야시의 설명으로 회귀한 느낌이다. 광해군의 내정과 외정에 대한 평가는 하야시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주화·척화론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로인데, 최명길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인 것은 이나바의 『清朝全史』 상권과 유사하다. 인조반정을 忠義之士의 거사라 평가한 부분은 인조반정 집권 세력이 생산한 조선 당대의 기록을 무비판적으로 차용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sup>90)</sup> 이와 같이 광해군 외교노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비슷한 시기 오시부치(1928), 이나바(1933), 우라(1934)의 著作에서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점도 흥미롭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시도가 향후 관련 연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히고 글을 맺고자 한다. 우선 식민지기 조선인 학자들의 병자호란 관련 연구와 일본인 연구자들의 그것이 어떠한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고찰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근대 역사학의 도입 이래, 민족주의 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이 공통으로 딛고 있었던 인식론적 기반과 전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근대 역사학이 관련 연구에 기여한 바는 무엇인지, 또 17세기 조선의 역사를 왜곡한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해방 이후 한국사학계와 대중의 역사 인식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병자호란 이후 중화·중국 인식과 연관된 조선 후기 역사의 전개 과정 - 北伐과 北學, 朝鮮中華主義 - 에 대한 새로운 연구 시각과 전망을 열어주는 데에도 一助하게 되리라고 기대한다.

---

90) 篠田治策, 앞의 책, 1930, 10쪽.

■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DB(<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
- 金平默, 『重菴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https://db.itkc.or.kr/dir/item?itemId=MO#/dir/list?itemId=MO&gubun=book>).
- 林春勝·林信篤 編, 浦廉一 解説, 『華夷變態』上·中·下冊, 東洋文庫, 1959.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현대인물자료DB(<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im>).
- 나고야대학 법학대학원 JINJIKOSHINROKU(who's who)DB(<https://jahis.law.nagoya-u.ac.jp/who/search/who4>).
- 高橋亨 著, 구인모編 譯,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 구범진, 『병자호란, 흥타이지의 전쟁』, 까치, 2019.
- 김종원,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 朝淸交涉과 東亞三國交易을 중심으로』, 혜안, 1999.
- 르네그루세 著, 김호동 譯,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세계질, 1998.
- 이나바 이와키치 著, 서병국 編譯, 『만주사통론』, 한국학술정보, 2014(원서는 稻葉岩吉, 『滿洲國史通論』, 일본 평론사, 1940).
- 정상우, 『만선사, 그 형성과 지속』,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 조선총독부 編著, 김문학 譯, 『일제가 식민통치를 위해 분석한 조선인의 사상과 성격』, 북타임, 2010(원서는 朝鮮總督府 編, 『朝鮮人の思想と性格』, 東京:大海堂, 1927).
-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 \_\_\_\_\_, 『광해군』, 역사비평사, 2000.
- 허태구, 『병자호란과 예(禮), 그리고 중화(中華)』, 소명출판, 2019.
- 林泰輔, 『朝鮮通史』, 東京:富山房, 1912.
- 稻葉君山, 『淸朝全史』上卷, 早稻田大學出版部, 1914.
- 瀨野馬熊, 『朝鮮史大系-近世史』, 靑丘學會, 1927.
- 篠田治策, 『南漢山城の開城史 - 極東に於けるcapitulationの一例』, 京城:非賣品, 1930.
- 田川孝三, 『毛文龍と朝鮮との關係について』, 靑丘說叢卷三, 靑丘學會, 1932.
- 稻葉岩吉, 『光海君時代の滿鮮關係』, 京城:大阪屋號書店, 1933.
- 稻葉博士還曆記念會 編, 『滿鮮史論叢-稻葉博士還曆記念』, 稻葉博士還曆記念會, 1938.
- 塚瀬進, 『マンチュリア史研究-滿洲六〇〇年の社會變容』, 吉川弘文館, 2014.
- 辻大和, 『朝鮮王朝の對中貿易政策と淸淸交替』, 汲古書院, 2018.
- 계승범, 『광해군대 말엽(1621~1622) 외교노선 논쟁의 실체와 그 성격』, 『역사학보』 193, 역사학회, 2007.
- 김종준, 『식민사학의 '한국근대사' 서술과 '한국병합' 인식』, 『역사학보』 217, 역사학회, 2013.
- 김태훈, 『인조대 전반기 국제정세 변화와 대일정책』, 『한일관계사연구』 55, 한일관계사학회, 2016.
- 瀧澤規起,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와 '滿鮮史』』, 『한일관계사연구』 19, 한일관계사학회, 2003.
- 박민수, 『흥타이지 시기(1627-1643) 만주의 對 中國 전략』, 『군사』 10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 성백인, 『三田渡碑 滿洲文』, 『동아문화』 9,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70.

- 櫻澤亞伊, 「이나바 이와키치의 만선불가분론」,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인식』(조인성 외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오수창, 「청(淸)과의 외교 실상과 병자호란」, 『한국사시민강좌』 36, 일조각, 2005.
- \_\_\_\_\_, 「오해 속 병자호란, 시대적 한계 앞의 인조」, 『내일을 여는 역사』 26, 서해문집, 2006.
- 우경섭, 「자초한 전쟁이 아닌, 피할 수 없었던 전쟁-병자호란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에 대한 새로운 해석 [서평] 허태구(2019),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 소명출판, 387쪽.」, 『인문논총』 76-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 이명제, 「소현세자 서사의 탄생과 역사 속의 소현세자」, 『역사와 현실』 125, 한국역사연구회, 2022.
- 이태진, 「黨派性論 批判」, 『한국사시민강좌』 1, 일조각, 1987.
- 장영숙, 「李王職의 『高宗·純宗實錄』 편찬사업과 그 실상」, 『사학연구』 116, 한국사학회, 2014.
- 정성일, 「丁卯胡亂과 朝鮮의 貿易政策-1629년 日本 國王使의 上京과 관련하여」, 『사학연구』 49, 한국사학회, 1995.
- 한명기, 「丁卯胡亂 무렵, 朝鮮의 對日政策과 그 역사적 의미」, 『대동문화연구』 54,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06.
- 허태구, 「崔鳴吉의 主和論과 對明義理」, 『한국사연구』 162, 한국사연구회, 2013.
- \_\_\_\_\_,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의 丁卯·丙子胡亂 관련 주요 연구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81, 조선시대사학회, 2017a.
- \_\_\_\_\_, 「丁卯·丙子胡亂 전후 主和·斥和論 관련 연구의 성과와 전망」, 『사학연구』 128, 한국사학회, 2017b.
- \_\_\_\_\_, 「광해군 대 박승중(朴承宗)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인식」, 『한국학연구』 6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 江嶋壽雄, 「天聰年間における朝鮮の歳幣について」, 『史淵』 101, 福岡:九州大學文學部, 1969.
- \_\_\_\_\_, 「崇徳年間における朝鮮の歳幣について」, 『史淵』 108, 福岡:九州大學文學部, 1972.
- 稻葉岩吉, 「豫が滿鮮史研究過程」, 『滿鮮史論叢-稻葉博士還曆記念』, 稻葉博士還曆記念會, 1938.
- 寺内威太郎, 「『滿鮮史』 연구와 稻葉岩吉」, 『植民地主義と歴史學- そのまなざしが残したもの』, 刀水書房, 2004.
- 衫本直治郎, 「浦廉一博士略傳」, 『華夷變態』 下冊, 東洋文庫, 1959.
- 鴛淵一, 「清初に於ける清鮮關係と三田渡の碑文」 上·中·下の1·下の2, 『史林』 13-1·2·3·4, 京都:史學研究會, 1928.
- \_\_\_\_\_, 「滿洲語と文字·滿洲文學」, 『世界文化史大系』 19(白鳥庫吉 等 監修), 新光社, 1938.
- \_\_\_\_\_, 「『瀋陽狀啓』의 史料的 價値의 一斑- 特に 淸太宗と 睿親王의 身上に 關して」, 『神田博士還曆記念 書誌學論集』, 神田博士還曆記念會, 1957.
- \_\_\_\_\_, 「清鮮關係の一齣- 竹瀝考」, 『東方學』 27, 東方學會, 1964.
- 田川孝三, 「瀋館考」, 『小田先生頌壽記念朝鮮論集』, 1934.
- \_\_\_\_\_, 「瀋獄問題について」(上), 『靑丘學叢』 17, 靑丘學會, 1934.
- 中村榮孝, 「滿鮮關係의 新史料- 淸太宗朝鮮征伐に 關する 古文書」, 『靑丘學叢』 1, 靑丘學會, 1930.
- 浦廉一, 「明末清初の鮮滿關係上に於ける日本の地位」(一)·(二), 『史林』 19-2·3, 京都:京都大學東洋史研究會, 1934.
- \_\_\_\_\_, 「滿洲人の社會生活並びに經濟生活」·「滿洲人の宗教生活」, 『世界文化史大系』 19(白鳥庫吉 等 監

修), 新光社, 1938.

\_\_\_\_\_, 「明末清初に於ける滿・鮮・日關係の一考察」, 『羽田博士頌壽記念 東洋史論叢』, 京都: 京都大學東洋史研究會, 1950.

\_\_\_\_\_, 「台灣鄭氏 特に鄭經と朝鮮との關係」, 『廣島大學文學部紀要』 3, 廣島: 廣島大學文學部, 1953.

# A Critical Review on Japanese Scholar's Studies on the Byeongja Horan(丙子胡亂, Qing Invasion of Joseon Korea in 1637) during the Colonial Era

- with a Focus upon Studies of Oshibuchi Hajime(鴛淵一),  
Shinoda Jisaku(篠田治策), and Ura Renichi(浦廉一) -

Huh, Tae-koo\*

This paper examines the works of Japanese researchers who have focused on the Byeongja Horan(丙子胡亂) as a key topic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summarizes their features and limitations.

The first, by Oshibuchi Hajime(鴛淵一), utilizes the Samjeondobi(三田渡碑)'s inscriptions as a primary source and attempts to extract common features and aspects of the wars that run through the Battle of Sarhu, Jeongmyo Horan(丁卯胡亂), and Byeongja Horan(丙子胡亂). His thesis is characterized by linking the economic needs of the Qing dynasty behind the armed conflicts between Joseon and Qing to the great and generous grace of the Qing emperor described in the inscriptions. However, given the different national powers and circumstances of the Joseon, Ming, and Qing dynasties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three armed conflicts, it is fair to say that his explanation suffers from the fallacy of hasty generalization.

The second, the study of Shinoda Jisaku(篠田治策), was attempted under the comparative historical interest of the author, who, as an international law major, was in charge of the surrender of the Russian army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It is the first scholarly book to deal with the Byeongja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Horan(丙子胡亂) as a single topic since modern times, and it is significant that it details the battles, negotiations, and surrender process before and after the siege of Namhan Sanseong(南漢山城). However, the author's unique perspective and in-depth interpretations throughout the book are lacking compared to the works of the other two major oriental history researchers.

The third study, by Ura Renichi(浦廉一), reconstructs the conflict between the Joseon and Qing dynasties in the 17th century, a period of hegemonic change in East Asia, from a Japanese perspective. Inaba Iwakichi(稻葉岩吉)'s earlier work briefly touched on relevant details, especially the negotiations and mutual recognition between Joseon, Tsushima, and the Edo shogunate, as well as the Qing dynasty's actions and responses, and Japanese perceptions of them. However, these studies also overestimate Japan's position and status at the time, leading to forced explanations and interpretations.

All three studies only understood the conflict and confrontation between Juhwaron(主和論) and Cheokhwaron(斥和論) in Joseon's historical sources in conjunction with the theory of partisanship or the theory of sadaejuui(事大主義論), which symbolizes the backwardness of Joseon politics. Furthermore, they failed to capture the voluntary driving force, legitimacy,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Cheokhwaron(斥和論) in Joseon.

**Key words:** the Colonial Era, the Byeongja Horan(丙子胡亂), Oshibuchi Hajime(鴛淵一), Shinoda Jisaku(篠田治策), Ura Renichi(浦廉一), the theory of partisanship(黨派性論), the theory of sadaejuui(事大主義論)